멸빈자 사면 종헌 결국 부결…팔공총림 해제

조계종 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

3월 26일, 하루 회기로 열려
원로회의 의원 보광 스님 추천
호계원장 정묵 스님 만장일치
2025년도 추경 383억원 승인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재적인원 81명 중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3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를 개원했다.

산불 확산으로 인한 종단 상황에 따라 이날 중앙종회는 종회 개회 후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을 조정해 하루를 회기로 진행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개회사에서 먼저 대형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4월 1일 조직 개편을 앞두고 이날 임시회에서 안건 하나하나를 대하는 데 있어 절차탁마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 지역 현장 방문으로 회의에 불참한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종단의 역사적 상흔을 보듬고 화합의 모범으로 혼란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상생의 기운을 불어넣어야 할 때"라며 "문수의 지혜로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안 부결

조계종단 및 승가의 대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안은 결국 부결됐다.

중앙종회는 제233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첫 안건으로 멸빈자 사면에 대한 종헌 개정안을 논의했다. 총무원장이 제출한 종헌 개정안과 종회 차원에서 발의한 종헌 개정안 두 건이 함께 올라왔으나, 종회의원 발의 종헌 개정안을 철회한 후 총무원장 제출 종헌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가 진행됐다.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994년 종단개혁에 따라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사면을 통해 종단 및 승가의 대화합을 도모하고자 함'을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투표결과, 73명 의원이 투표해 찬성 31표, 반대 42표로 개정안이 부결됐다.

팔공총림, 총림 해제

팔공총림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총림에서 해제됐다.

팔공총림 해제 건은 제9교구본사동화사특별감사위원회 감사 보고 이후 재안 스님의 대표발의자로 긴급발의 형식으로 상정됐다. 이어 투표가 진행으며 73명의 의원 투표 결과 찬성 50표, 반대 23표로 해제가 가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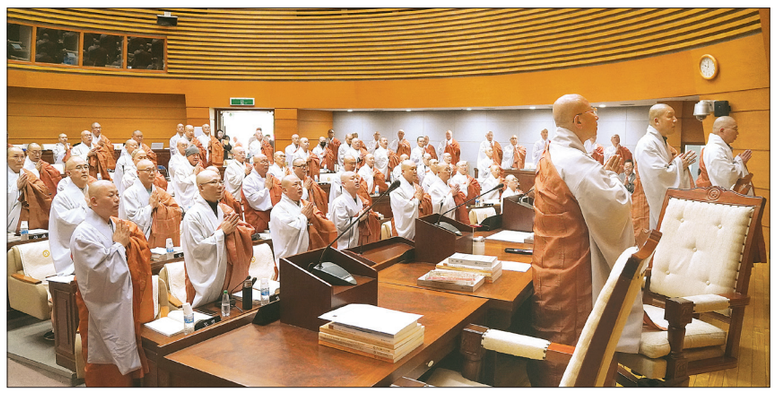
팔공총림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특별감사에서 회계관리와 원 운영 등에서 다량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선원과 강원, 율원 등 총림 구성 요건을 충실히 갖추지 못했다. 대표발의자 재안 스님은 "감사 결과 재정상 문제점이 발견됐고 율원과 염불원이 1년 이상 운영되지 않는 등 총림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특히 말사 주지스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 안건이 발의되자 동화사 종회의원 호암 스님은 "이번 감사는 표적감사"라고 반발했다. 진화 스님도 "현재 총림 요건을 갖춘 곳은 해인총림과 영축총림 뿐"이라며 "총림의 상징성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수의 스님들이 총림해제 표결을 요구하자,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해제 건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결과 찬성 50표, 반대 23표로 총림해제 건은 가결됐다.

투표에 앞서 제9교구본사동화사특별감사위원회 위원장 각진 스님은 특별감사에 대해 총평했다. 총평에 따르면 기본적인 종무행정에 있어 미비한 점이 다량 확인됐다. 또 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찰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 진행 미비, 본사 종무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회계관리 부분에서도 계획 및 증빙자료 없이 무분별하게 지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각종 인사안건도 처리

이번 중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인사안건도 처리됐다.


조계종 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3월 26일 하루 회기로 개원, 20여 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에는 보광 스님이 추천됐다.

보광 스님은 1970년 분황사에서 도문 스님에게 사미계를, 1980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에게 구족계를 수지했다. 2023년 4월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현재 정토사 회주이자 대각사상연구원 대표다.

제21교구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에 현묵 대종사를 추대했다.

방장은 종헌 제105조 제1항 및 총림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산중총회에서 추천해 중앙종회에서 추대한다. 3월 6일 송광사 자재원에서 개최된 산중총회에는 구성원 총 315명 중 217명이 참석했으면 만장일치로 방장 후보자로 현묵 대종사를 선출한 바 있다.

현묵 대종사는 1972년 구산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1976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2023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제12대 중앙종회의원, 원효사 주지, 고불총림 선원 한주, 덕숭총림 선원 한주, 조계총림 선원 유나와 선덕을 역임했다.

신임 호계원장에는 동국대 불교학원장 정묵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함께 후보로 오른 진화 스님은 투표 직전 후보자를 사퇴하면서 투표 없이 정묵 스님이 선출됐다. 진화 스님은 종단 화합과 결속을 위해 고심 끝에 사퇴한다고 밝혔다.

정묵 스님은 "종헌종법에 따라 공명정대한 호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묵 스님은 1976년 수덕사에서 법성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1979년 성재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역경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조계종 호법부장에는 도심 스님이 임명 동의를 얻었다. 호법부장은 종헌 제36조, 제52조와 중앙종회법 제2조, 총무원법 제22조에 의해 중앙종회의 얻어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호법부장 임명 동의를 얻은 도심 스님은 1999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2005년 송광사에서 보성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성불사 주지이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계법 개정안 원안 통과

정운 스님이 대표 발의한 법계법 개정안이 원안 통과됐다.

법계법 제5조 '9인의 법계위원'을 '비구 법계 심사는 9인의 법계위원으로 비구니 법계 심사는 12인의 법계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원안 통과에 따라 '종사급 이상 비구 중에서'를 '종사 이상 비구 9인, 명덕 이상 비구니 3인을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한다. 또한 비구니 법계위원은 명사 특별전형 심사에 한해서 권한을 가진다.

지금까지는 명망 있는 원로 비구니스님들이 명사 법계를 품수하는데 있어 9인의 비구 법계위원 스님만으로 심사해 해당 비구니스님들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법계법 개정안은 명사 특별전형에 한해 비구니 법계위원 3인을 추천해 비구니 법계심사에 참여시키고자 제안됐다.

2025년 추경 383억 승인

조계종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추경 예산으로 382억 5410만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은 2025년 대비 동결 편성됐다. 다만 2024년 일반회계 결산 사항을 일부 반영해 전년도이월금 2025년 예산 대비 약 66억 7000만원이 증액됐다.

4월은 '불교의 달, 마음 평안의 달'

"조계종이 희망의 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계종(총무원 진우 스님)이 4월 1일부터 5월 5일 부처님오신날까지 기간을 '불교의 달, 마음 평안의 달'로 정하고 국제선명상대회,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연등회 등의 대규모 행사를 연이어 개최해 불자와 국민 마음에 평안과 위안을 전한다.



광화문 봉축점등식을 시작으로 서울 전역에 거리 연등불이 켜지면 행사는 조계사를 중심으로 한 종로 광화문 권역과 봉은사를 중심으로 한 강남 코엑스 권역에서 진행된다. 서울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에서 개최되는 만큼, 가족 나들이나 데이트 코스로도 손색없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세대와 성별을 떠나 누구나 불교를 더욱 가깝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선명상 및 간화선 화두 체험, 사찰음식 체험, 전통 불교예술 및 불교 굿즈 전시, 강연 및 법문 등이 마련돼 있다.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일상의 여유와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전국 57개 사찰에서 선명상 템플스테이 특별주간이 운영된다. 4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2030 청년세대 2500명을 대상으로 1만원에 템플스테이를 제공한다. 02-2011-1723

임은호 기자

교육원장 범해 스님·포교원장 선업 스님 퇴임

3월 26일…200여 명 동참
발자취 돌아보는 영상 시청



조계종이 오는 4월 1일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이라는 삼원체계에서 총무원 일원 체계로 개편을 앞두고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이 소임을 마무리했다.

조계종은 3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10대 교육원장 범해 스님 및 제9대 포교원장 선업 스님' 퇴임식을 거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교육원 산하 기관 관계자, 포교·신행단체 임원진, 총무원 교역직 스님과 종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퇴임식은 승가교육에 매진한 범해 스님과 포교·전법에 헌신한 선업 스님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영상 시청으로 시작됐다.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퇴임사에서 종단 승가교육 중심에서 수행과 교학이 조화를 이루는 승가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역대 교육원장 스님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범해 스님은 "앞으로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중심으로 종단의 뜻을 모아 미래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승가교육 불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께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저는 이제 산중으로 돌아가지만, 늘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정진하겠다"고 인사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GO! 전법.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슬로건으로 포교활동에 전념했던 제9대 포교원의 활동을 소개했다. 선업 스님은 "포교원은 젊은 불교, 힘한 불교의 흐름을 이어 나가면서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고자 정진했다"며 "이 모든 과정이 가능했던 것은 사부대중 여러분의 깊은 신심과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원활한 포교원 운영을 지원하며 곁에서 큰 힘이 되어준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혜안 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범해 스님은 승가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선업 스님은 포교·전법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각각 종정상을 수상했다.

김내영 기자

창종 제66주년을 축하합니다

경 대한불교총화종 창종 제66주년 기념 법회 봉행 축

대한불교총화종은 부처님의 근본 교리를 구체적으로 널리 전파하고 석가세존(釋迦世尊)의 교리(教理)를 봉체(奉體)하며 대중행원(大衆行願)과 육화정신(六和精神)을 닦아 생활(生活)과 직결(直結)된 대중(大衆)을 현대불교(現代佛教)의 구현(具現)으로 안심입명(安心立命), 광도중생 · 보국안민(廣度衆生 · 報國安民)함을 목적(目的)으로, 태고 보우국사(太古 普愚國師(1301~1381))를 종조(宗祖)로 1960년 4월 15일 초대 종정 추강(秋岡) 최득연 큰스님과 초대 총무원장 법사(法師) 신종원 큰스님에 의하여 창종을 하였으며 불기2569(2025)년 현재 창종 제66주년을 맞아 창종법회를 봉행 하오니 법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종 제66주년 기념 법회 봉행 일정

- 일 정 : 불기2569(2025)년 4월 17일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전 화 : (043)745-4508, 총무부장 법장스님 010-5436-2740
- 장 소 :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정죽촌로454-86(죽촌리341번지) (사)대한불교총화종 총본산 실상사

社團法人 大韓佛教總和宗 總務院長 慧覺